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평균 16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 중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기 보다는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 내지 일시적 정지기간으로 보여짐으로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재해자의 단합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주거나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해 온 점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행사에 참가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가 동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언덕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A 청구인은 건설노무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4년 1월 31일 회사 동계 단합대회 숙소인 속초 OO리조트에서 07시경 기상하여 리조트 내를 거닐던 중 옹벽부근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내 원위대퇴골 외과 분쇄 전 위골절'의 상병명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에서는 청구인은 1일 단위로 사용종속 관계

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며 동 행사에 직원인부 중 일부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행사 불참시 특별한 제재요인이 없는 점, 해사 당일을 출근으로 인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회사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수년간 회사 공사현장에 직원인부로 근무하였고 2003년 1월 1년 간에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사집행규칙 제113조).

귀하의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첨부,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 인도명령결정문을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 후 소정의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담당집행관이 자동차인도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자동차인도집행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통의 경우 주간에는 채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야간에 집행대상 자동차가 차고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집행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저에게 700만원을 빌려간甲이 변제일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으므로,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한대가 있을 뿐이고, 저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甲은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자동차강제경매시결정문을 받아 자동차인도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가 자동차를 빼돌리면 강제경매시결정 후 2일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애써 진행시킨 강제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따라서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민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화기능이 떨어져 실사를 하게 되며 겨울철을 이겨낼 기력이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약과 함께 양생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양생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몇 명의 보약보다 낫다. 사실 한방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일 뿐만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비축하는 양생법이다.

공해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의 하늘은 맑고 높고 푸르다. 가을철 양생법을 따라 무엇인가 담당하게 채워졌던 마음도, 복잡한 머릿속 상념도 이 하늘에 미련 없이 던져 버려버리고 평온함을 되찾아보자. 아무리 비싼 좋은 보약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여유 있고 평온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다. 항상 가을 들뜬에 그득한 곡식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라. ☞의정부 수 한방병원 (031-820-7200) www.1jhanbang.co.kr

가을철 양생법과 보약 ③

양생법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키는 일종의 생활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생법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몸과 마음의 정단점을 살피고 덕을 닦는 노력을 기본으로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로부터 여러 명의(名醫)들의 양생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특히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등 의서(醫書)에 보면 계절의 변화를 중시하여 계절마다 독특한 양생법

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양생법을 거역하면 거기에 따른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을은 모든 만물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용평(容平)의 계절로 이때는 천지의 기운이 수축되고 맑아지며 모든 것이 수렴되기 때문에 담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혀 평온하게 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폐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호흡기도 튼튼하게 되어 가을 공기에 적응하는데, 이를 거역하고 무리를 하고 폐를 차게 하며 정신을 동요시키면 겨울에 폐가 나빠지고 소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키게 됩니다. 성희롱이라고 생각 되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은 성적충동이다.

성희롱의 피해는 연령과 계절과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도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인쇄하는 것만이 평등한 사회 건전한 직장문화를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렵다면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또, 주변 동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든지 상급자에게 알려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

성희롱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성희롱은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성희롱의 통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을 바라보면 첫 번째,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의 성희롱 경험은 사람의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것 뿐 아니라 때때로 정신 장애,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인 농담 또는 가벼운 접촉이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나 듣는 사람은 수치감 또는 모욕감을 느껴 업무 수행을 방해 또는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희롱은 의도성이 아니라 보다는 친밀감의 표시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으로 보기보다는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다른 동료는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불쾌한 성희롱을 모른 척 지나가는 건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결과가 되고 지속시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정영호**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전에는 남자 환자분들에서 주로 보이는 외상에 의한 혹은 선천적인 외비기형등과 같은 구조적, 기능적, 미용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젊은 여성의 미용비형도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이비인후과에서도 코성형술을 하나요?' 하는 물음이 지금처럼 당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음자체가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하여 '생똥' 맞게 들리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필자는 느낀다. 아무쪼록 현대인에게 일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것을 요구하는 이 어려운 현대 사회에 자신의 코의 모양과 기능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비인후과에서 모양도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편안한 코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포천병원 (031-539-9114)

코 성형술을 이비인후과에서? ③

필자와 아주머니의 남편 분은 아주머니는 너무 죄송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재미있게 들려 소리내어 같이 웃었다. 아주머니는 수술결과에 만족을 하시며 두 내외분이 손을 잡고 나가셨고 필자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두 분이 같이 이비인후과로 보톡스와 태반주사를 맞으러 오시라고 웃으며 말씀드렸다. 이왕 예뻐지실 거 확실하 예뻐지셔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러한 필러 주사를 이용한 비

성형술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되는 많은 비성형술의 일부일 뿐이다. 비성형술은 코에 대한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콧속에 보형물을 넣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단순한 시술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코성형술이 낮고 작은 코를 올리는 용비술인지, 매부리코를 교정하기 위한 축소술인지, 절골술을 시행해야 하는지, 코끝 성형술을 같이 해야 하는지, 코바깥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갈지 코안으로 절개를 할지, 외비뿐 아니라 비강안의 해부학적인 이상까지 교정해야 하는지든 코의 모양과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이 들롱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법인 같이 분명하게 불건을 구입하였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실무자의 부주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여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와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세무사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꼭 같이 받으시고 거래대금은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시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셔야 하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세금계산서 때문에 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으면 법인세와 인정상 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은 구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의류 제조를 하는 법인입니다. 의류 원단을 구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제의에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실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행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이 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법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자료상 근절을 과세당국의 첫 번째 과업으로 여기고 자료상 혐의 자 조기색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사전 검색 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인 정기적인 사업자등록 표본검점을 철저히 집행하고, 다양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여 자료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거래자에 대하여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상사업자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똑같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A 귀 법인처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를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이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거의 100% 들롱나다고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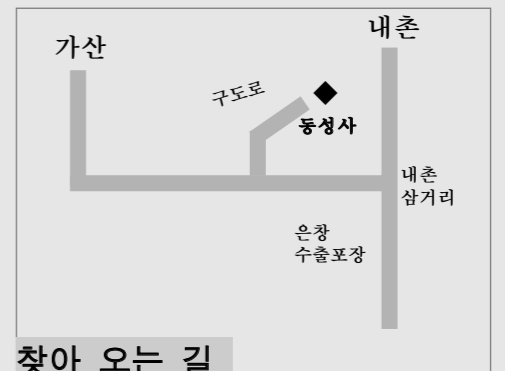
세금계산서는 물고 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산 상으로 등록되고 어느 한 사업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의 선두주자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